

자유기고

이해조 문학, 그 역사적 마음 쓰기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기에 붙이 한 개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에 잡아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꿀 표면의 질감을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어떤 향기가 납니까? 또 꿀을 까서 한 쪽을 입에 넣어 보십시오. 어떤 맛이 느껴졌습니까? 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실제로 어떤 반응이 옵니까? 인간의 뇌는 가상과 실재를 구별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까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준 두 부류의 환자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물론 진짜 약을 먹은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왔지만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에게도 무려 35%의 치료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몸에 작용하는 증거입니다.



홍을표
이해조문학회 회장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사무처장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 나타난 어휘를 보면 인물의 성격과 계급에 따라 실로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풍부한 우리말의 보고(寶庫)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해조선생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론이나 해설에 의지하지 말고 직접 텍스트로 들어가십시오.

이해조선생은 제가 보기로는 천재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세부 묘사에서의 치밀성과 무당, 기생, 지관, 종 등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 묘사 등에 이르면 도저히 전 통적인 양반 가문의 선비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도 현대의 작가들도 가기 힘든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지요. <화성대전>, <철세계> 등의 외국 소설 번역서를 낸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분입니다.(이 두 작품과 <자유종>은 일제에 의해 금서가 되었다.) 그는 당대 유명인사들과 교류하여 근대 사상과 시대정수 그리고 세계 정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온건개화파의 거두 김윤식은 그에게 큰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도서기, 중세서용 즉 문물과 제도는 서양 것을 받아들여야만 정신적인 가치만은 우리 것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구마경> 등의 소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대의 마음 쓰기와 함께 전시대의 마음 쓰기도 필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 왔지만 아직도 마음의 실체는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 심자 심장을 닮았다고 심장에 있다고 한다면 심장을 해부해보니 피 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뇌에 있을까요? 뇌는 분명 신경세포를 작용하여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뇌에만 있었나요? 저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나 되는 세포에 모두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양의학이 발달하면서 해부학적인 기술과 세포 단위 나아가 분자 원자 단위까지 나아갔지만 몸의 실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마음은 배제하고 몸을 잘게 나누어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원자 보다 더 작은 소립자 단위 이하로 가면 결국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경지이지요.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감각입니다.

저는 문학은 인간의 삶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감각론은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독일의 관념론은 마르크스주의와 히틀러의 독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최후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감밖에 없다는 감각론과 경험주의 철학에 동조합니다. 오감을 예민하게 하여 직관력을 키우고 나아가 예지력과 통찰력이 생기면 인간의 가장 고등적인 창조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학이 바로 그 행위입니다.

현대의학은 몸의 치료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마음의 치료에는 아주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치유가 오히려 몸의 치유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마음을 치료에 응용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리고 무용치료 등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문학의 효용도 마음의 치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주는 몸에 미리 약한 세균을 넣어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 많은 약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약인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예방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긍정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동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문학의 이러한 평화 작용이 더없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오염은 환경오염보다 심각합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지만 일전에 어느 유치원 연수 행사에서 대형 화

제가 난 일이 있었는데, 살아남아 화상으로 고생한 여러 아이들은 주변의 형제와 땀과 그리고 멀리서 건너지 못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참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오염된 증거입니다. 그네들처럼 왜 얼마나 아팠잖나며 동정하며 이웃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쓰지 못하고 외형적인 몸만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것도 문학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맑은 7%, 태도와 몸짓은 55%, 그리고 목소리가 38%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말의 전달력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학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논설문이나 설명문과 문학 표현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논설문과 설명문은 주장과 의견으로 이루어진 보편적 관련 덩어리이지만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소설에서는 구체적인 인물과 줄거리 그리고 사건과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전달력을 최대한 고양시킵니다. 일상의 7% 전달력을 100% 전달력으로 높이기 위해 오감과 오성을 통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해조 문학은 우리 마음의 뿌리이다. 이제 이해조 선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해조 선생의 40편이나 되는 작품 중에 불과 7편밖에 읽지 못했기에 평론가적 입장에서 서서 이해조 선생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평론가의 견해에 의하여 이해조 선생의 문학을 평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해조 관련 논문 중에 작품의 이해를 위해 읽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해조선생을 재평가하는 데 큰 업적을 남긴 최원식 교수의 글을 읽었지만 그것도 저가 직접 작품을 읽기 전에는 참고하지 않았습나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해조선생은 기자로써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다른 어떤 역사서보다 더 생생하고 살아 있는 인간상과 시대상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볼 수 없고 당시에 비디오킴 같은 것이 없어 촬영해 놓지도 못했으니 당시에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조선생의 문학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인간들의 내면에 들어가 볼 수 있고 당시의 시대상과 정치적 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 나타난 어휘를 보면 인물의 성격과 계급에 따라 실로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풍부한 우리말의 보고(寶庫)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해조선생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론이나 해설에 의지하지 말고 직접 텍스트로 들어가십시오.

이해조선생은 제가 보기로는 천재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세부 묘사에서의 치밀성과 무당, 기생, 지관, 종 등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 묘사 등에 이르면 도저히 전 통적인 양반 가문의 선비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도 현대의 작가들도 가기 힘든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지요. <화성대전>, <철세계> 등의 외국 소설 번역서를 낸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분입니다.(이 두 작품과 <자유종>은 일제에 의해 금서가 되었다.) 그는 당대 유명인사들과 교류하여 근대 사상과 시대정수 그리고 세계 정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온건개화파의 거두 김윤식은 그에게 큰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도서기, 중세서용 즉 문물과 제도는 서양 것을 받아들여야만 정신적인 가치만은 우리 것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구마경> 등의 소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조선생은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기자로서 국제보상운동 등 현실 참여를 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해 교육사업에도 헌신한 인물입니다. 이해조선생의 문학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분입니다. 우리는 겨우 코끼리 다리 만지듯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배우고 있는 입입니다. 저의 이해조선생에 대해서는 매달 한편씩 회원들의 직접 읽고 토론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중들이 그의 소설을 읽고 느꼈을 그런 느낌을 우리도 느끼기 위해 각자의 감각을 동일합니다. 저는 이해조선생의 문학이 주는 계몽적 성격이 있음에도 인간에 대한 치열한 탐구에 그의 문학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소설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과 역사적인 한계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조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뉘누나!’ (위즈위즈)
몸을 통해 나타난 감각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몸은 구체(具體)이지 추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일 뿐입니다. 저는 문학은 인간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구체(具體)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몸을 다루는 의학이 구체적인 학문인 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전모를 파헤치려는 문학도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저는 이해조문학에서 바로 100년 전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심층 구조와 그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韓國의 선비정신 · 11

임금도 꾸짖은 대쪽선비 남명 조식 1501(연산군7)~1572(선조5)

남명의 상소문

<전략>
나라의 근본은 없어졌고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떠나 버렸습니다. 큰 고목이 백년동안 벌레에 먹혀서 그 진이 다 말라 버렸으니 언제 폭풍우를 만나 쓰러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리효종
포천현시사 대표

<중략>
낮은 벼슬아치는 아랫자리에 서 술과 여색에 빠져있고 높은 벼슬아치는 뒷자리에선 빈둥거리며 뇌물을 받아 재물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썩어 배가 아픈 것처럼 온 나라의 형세가 안으로 썩을 대로 썩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략>
대비(大妃-문정왕후)께서는 신실하고 뜻이 깊으시나 구중궁궐과 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아직 어리시나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에 불과 합니다. 백가지 천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억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중략>
옛날 세종대왕때나 성종대왕때의 성덕으로 다스리던 때를 생각하십시오. 임금에게는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직한 선비가 목숨을 걸고 임금을 꾸짖은 대쪽 선비정신이다. 퇴계가 조광조의 괴력한 개혁의 실패를 거울삼아 집진적인 개혁의 씨앗을 뿌리고 새정치

세력인 사림의 입지를 다져 놓았다 하면 남명은 감직한 기성과 강렬한 비판의식을 가진 재야 사림으로써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회개혁을 종횡했다. 남명은 지나치게 투철한 정치의식 때문에 현실 정치권에 들어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퇴계와 남명은 두 사람에 사회 정의 구현의 이상을 교육에 걸고 새시대를 준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위대한 두 선비는 경상좌도와 경상우도의 양대 산맥으로 영남학파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다.

남명도 어머니의 열락한 가르침의 충효에 대한 열망 때문에 진사 생원 초시와 문과 초시에 급제하였으나 당시 기묘사화로 숙부 조언경이 희생되고 부친이 좌천되는 것을 목격하고 사모의 험난함을 목격하고 이때부터 과거를 위한 공부보다 오로지 오로지 유학의 본질을 파고드는 공부에 전념하였다. 남명이 취한 학문의 핵심과제는 마음을 각성하는 경의 수양론과 의의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이론편이었다.

그가 거처하던 산천제의 창쪽 벽에 ‘경의(經義) 두 글자를 크게 써 붙이고 오른쪽 벽에 임금이 세 사제를 지키다 죽어야 한다는 내용의 신명사도명(神明舍圖)을 걸어 두었던 사실은 그의 학문적 근본 개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명의 높은 학덕을 사모하여 그의 문하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오건, 정구, 김우용, 정인홍, 객재우, 이제신, 김효원, 박제인, 조종도, 노진, 최영경, 하항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남명의 문인들의 특징으로 대부분 은둔하면서 학문에 몰두했다는 점과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가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야 지식인으로 은둔해 있다가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창칼을 들고 적군과 맞서 싸움으로써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선비의 기백을 보인 것이다.

1572년(선조5) 임금도 꾸짖은 대쪽 선비 남명은 산천제에서 여러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현의 ‘경의’에 가르침을 의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조정에서는 대사가 생원 초시와 문과 초시에 급제하였으나 당시 기묘사화로 숙부 조언경이 희생되고 부친이 좌천되는 것을 목격하고 사모의 험난함을 목격하고 이때부터 과거를 위한 공부보다 오로지 오로지 유학의 본질을 파고드는 공부에 전념하였다. 남명이 취한 학문의 핵심과제는 마음을 각성하는 경의 수양론과 의의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이론편이었다.

도학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태어나 분발 정진함으로써 도학을 일으켜 세운 학자요, 그에게서 경의의 가르침을 받은 수 많은 제자가 국난 위난의 시대에 의병장이 됨으로써 성공한 교육자로 추앙된다.

포천메나리 대통령상 수상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지난 1일부터 2일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16개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16개팀 876명의 중고생이 출전한 가운데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포천종합고등학교의 포천메나리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영예를 안았다.



포천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출한 포천메나리가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포천메나리는 농사일의 과정에 따라 나무꾼소리(입산·하산노래), 소들이(썰레질소리), 열소리(모내기소리), 방아타령(긴·자진아리: 애벌논매기소리), 메나리(두벌논매기 소리), 담쌓는 소리, 새 쫓는 소리 등으로 편성했고, 이런 노래의 중심이 메나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초대 漢詩

追慕漢陰先生 (추모한음선생)

先生睿智稟於天(선생재지품어천)
선생님의 예지는 하늘에서 받아 가지고 나셨으니

名振湖堂却少年(명진호당각소년)
호당에 명성을 진동하니 문과 소년시절이로다

文學專承先往聖(문학專承先往聖)
문학은 로로지 먼저 가진 성인들 이어 받고

禮儀傳授後來賢(예의전수후래현)
예의는 정하여 뒤에는 현인에게 주셨도다

侍親至孝俾虞舜(시친지효부유순)
아버지 모시는 효도는 순임과 비슷하고

佐主仁言似仲連(좌주인언시중련)
임금님 보좌하는 인언은 노중련과 같으시도다

救世拯民功績大(구세중민공적대)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건진 공적이 대대하고

平難能致國安全(평난능치국안전)
평안하여 농히 나라를 안전하게 하셨도다.



香隱 柳鳳鉉
군내면사무장 유도회 회장

초대 詩

태양어미

동녘을 붉은 빛갈로 물들이는 것을 보면 그는 아침이면 토약 짙 해대는 것이 틀림없다
발걸음 굽어오르는 바다를 보면 그가 열병으로 깊게 앓고 있음이 틀림없다
하늘에 점점이 흩어진 얼룩을 보면 그의 가슴이 헤어져 있음이 틀림없다
아침이 되면 의례 목구멍 매워버린 가래 덩이를 킁킁 내 뱉어야 하는 그의 심정이야 오죽할까만
뱃가죽 움켜쥐고 각 뱉어낸 덩어리 하늘에 박혀 빛살을 쫓는다



孫 進 洪
송우초등학교 교감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5)

‘산정호수’와 ‘김일성 별장’

영북면 산정리(山井里)에 있는 ‘산정호수(山井湖水)’는 1925년 일제치하에서 토지개발조합(당시 는 수리조합) 저수지로 개축된 인공 담수호이다. 호수물이 가득 차면 7만8천평 정도이고 수심은 23.5m 들레는 2.1km정도다. 1977년 3월 11일에 교통부(관광관할부서:당시)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은 포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다. 해발 993m의 명성산(鳴聲山)을 비롯한 많은 산봉우리들이 그 재태를 드리우면 산정호수는 금방 천하제일의 명화가 된다. 중국의 주자가 즐겼다는 무이산(武夷山) 구곡이나 무릉도원을 뺀질

만한 절경이 관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여 발을 멈춘다. 호수 주변에는 신선(神仙)이 날아 올랐다는 ‘선선폭포(仙仙瀑布)’와 용이 올라갔다는 ‘등룡폭포(登龍瀑布)’가 위용을 자랑하고 호수 양쪽에는 망봉(望峰)이 있다. 관광객들이 차고 넘치며 군 요양시설, 가족호텔(산정호수 호텔), 유스타운, 명성캠핑, 산정캠핑 등 수많은 워터 유숙시설이 손님을 친절히 반긴다. 호수 주위의 2.1km의 동근 산책로는 연인들의 아베코 데이트 코스로 이름 떨친 지 오래되었다. ‘산정호수를 모르면서 어찌 포천을 안다 하리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나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한국 휴양시설이 있어 이용된다. 겨울에는 겨울스포츠의 총아인 빙상경기(스케이팅·하키) 등의 연습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여름에는 물놀이 기구가 많으나 농번기나 가을에는(저수량이 적은 때에는) 밀바닥이 드러나 보기 흉할 때도 있었다. 수도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서울사람들이 1일 코스 또는 1박 2일 휴양 코스로 환영을 받는 곳이 산정호수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시인 목격들이 산정호수 호반에서 시 낭송회도 열고 그림도 화폭에 담은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산정호수 인근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기업의 수련원 등이 즐비한 것을 보아도 산정호수의 명성을 알만하다. 여름 한방중 하늘의 선녀들이 두레박을 타고 내려와 물 마시고, 목욕하고 다시 하늘로 오르지 않을까? 상상되어 지는 곳이 산정호수(山井湖水)이기도 하다. 필자연락처 02-932-2434